

더민주 시·도당 위원장 경선 가다

광주 박해자·이형석·이병훈·최진·민형배 5파전

전남 이계호·김영록 2파전 ... 내달 초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은 경선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당과 도당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27일 더민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 광산갑과 서갑 지역위원회는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관과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각각 지역 대의원대회를 연다.

동남갑·서을·북갑·북을은 29일, 동남을은 30일, 광산은 다음달 2일 대의원대회를 연다.

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경선시행 세칙, 후보자 공모·접수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다음달 1일 공고를 해 3~4일 후보 등록을 받기로 잠정 결정했다. 시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시당 대의원대회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다. 위원장 후보로는 박해자 현 위원장과 이

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도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전남 각 지역위원회별 대의원대회도 이날 해남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일제히 열린다.

후보등록 공고 및 접수 기간은 8월 1~2일이다. 도당 위원장에는 유일한 더민주 전남 현역 의원이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 현 위원장과 김영록 전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등산 약수터가 사라진다

중머리재 약수터 최근 폐쇄

4년새 11곳중 6곳 지정 해제

국립공원 광주 무등산 약수터가 사라지고 있다. 수질오염, 수량부족 등으로 약수터 기능을 제대로 못 해 폐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자로 무등산 중머리재 약수터 폐쇄를 결정하고 약수터 지정을 해제했다. 수질악화로 2012년 봉황대 약수터 폐쇄를 시작으로 2013년 꼬막재와 늦재, 2014년 화산마을, 지난해 평두재 약수터가 폐쇄되고 이번엔 중머리재 약수터까지 문을 닫아 2012년 11곳이었던 무등산 약수터는 5곳으로 줄었다. 범위를 광주지역 관할로 넓히면 이 기간 약수터가 14곳에서 8곳으로 줄었다. 그나마 사용중인 곳의 수질 적합률이 80%를 밑돌고 있고 관리등급 우려나 주의

약수터도 상당했다. 폐쇄된 약수터는 모두 국립공원 무등산 내에 있는 약수터다.

약수터 관리는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용중지 후 주변 오염물 제거 뒤 사용하고 이어 부적합이 나오면 '이용불가' 경고를 부착하게 돼 있다. 이후 1년간 부적합이 4차례 이상(4계절 포함) 이어지면 폐쇄한다.

사용중인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가 썩 좋지 않은 점도 지자체의 고민거리다. 이 가운데 5곳이 무등산 내에 있다. 지난해 약수터 9곳 수질검사 결과 적합률은 79%에 불과했다. 아예 수량이 없어 채수(採水)를 못 한 경우까지 더하면 73%로 더 떨어진다.

주말과 휴일이면 수만명이 찾는 무등산 중머리재 약수터는 지난해(11번)와 올들어(2번) 시행한 검사에서 단 한 번도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문을 닫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 28~30일 일본 방문

이낙연 전남지사가 28일부터 3일간 일본의 우호교류 강화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논설위원 등 한반도 전문가와 잇따라 만나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전남도에 50만 그루분의 편백 씨앗을



기증하기로 한 쓰치야 시나코(土屋品子) 중의원 의원과도 만나 지난해 1차 30만 그루분 기증에 이어 올해 예정된 2차 기증에 대해 협의한다. 이 지사는 장영식 도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재일 향우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전라남도 관광 및 투자환경 설명회에서 전남의 투자 여건을 소개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전남 인재육성 요람 '제2남도학숙' 착공

광주일보 1990년 모금운동 전개

제1남도학숙 설립 22년만에

29일 서울 녹번동에 604명 수용

서울에서 유학중인 광주·전남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제2 남도학숙'이 오는 29일 착공된다. 광주일보가 지난 1990년 범 시·도민 모금운동을 펼쳐 4년 뒤인 1994년 설립된 제1남도학숙 건립에 이어 22년만에 '제2 남도학숙'이 착공되는 것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건립하는 제2 남도학숙은 대학생들의 숙식비용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학사'이다. 양 시·도가 사업비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하고 보상비를 포함해 모두 498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대지 면적 5960㎡, 연면적 1만 3717㎡, 지하 1층~지상 7층, 304실 규모로 2018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인 1실(장애인 1인 1실) 원룸 형태로 화장실과 샤워실이 별도로 설치되며 총 수용 인원은 604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에 앞서, 지난 1994년에 시·도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공동 설립한 제1 남도학숙은 8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1만여명의 학생이 거쳐 갔다.

제1 남도학숙은 지난 1989년 광주일보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남도학숙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한 뒤 같은해 7월 광주와 전남이 공동건립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 전남지사를 지낸 고건 서울시장의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듣고 시우지를 싼값에 매입하도록 협조했으며, 정부가 부지 매입비 15억원 전액을 지원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80억원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담기로 했지만, 낮은 재정자립도 탓에 시·도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고충이 전해지자 광주일보는 1990년 4월19일 범 시도민 기금모금운동을 시작했으며, 1년 간 모금운동을 통해 11억7477만여원을 모았다.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이 1000만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 기업인, 노동자, 학생 등 크고 작은 정성들이 뜨거운 향토애로 모쳐 제1 남도학숙을 만들어냈다.



제1남도학숙 전경.



제2남도학숙 조감도.



1990년 4월 18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남도학숙 건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성금모금 행진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청년가구 10명중 3명 월소득 200만원 이하

市, 청년정책 수립 용역 결과

3명중 1명 "빚지고 산다"

광주지역 청년(19~39세)가구 10명 중 3명은 월 소득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한 용역 결과 발표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는 28.7%, 200

만~300만원 이하는 27.1%였다. 500만원 이상 가구는 7.7%였다. 100만원 미만 가구도 16.1%에 달했다. 특히 20~29세 청년층은 28.9%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30~39세는 그 비율이 톱 떨어져 3.2%였다.

소득이 없는 만큼 지출도 위축돼 200만원 미만인 70% 가량을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 소비지출은 90%에 달했다. 청년 가구의 지출 중 식료품비가 54.

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거비(34.7%), 기타(28.6%), 교통비(21.8%) 순이었다.

3명 중 1명(33.8%)은 빚을 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규모는 늘었다. 19~24세는 62만원, 25~29세는 678만원, 30~34세는 1689만원, 35~39세는 3021만원에 달했다. 평균 부채 규모는 154만원으로 집계됐다. 빚은 진 이유로 20대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30대는 부동

산과 생활비 등을 주된 사유로 꼽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6.4%로 전국 평균(70.2%)보다 3.8%포인트 낮았으며 전국 시도 중 울산(65.9%)과 전북(64.4%)에 이어 가장 낮았다.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 3.0%에 비해 4.6% 포인트 높았으며 청년 고용률 역시 63.1%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광주 청년 인구는 44만1000여명으로 전체 인구(147만2317명)의 30%를 차지했다. 북구가 13만5247명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12만3519명), 서구(9만2689명), 남구(6만2735명), 동구(2만7240명)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민국이 마시는 건강한 수돗물

맛있습니다. 안전합니다. K-water가 만듭니다.



250항목 수질검사로 깨끗!



균형잡힌 미네랄이 듬뿍!



과학적 토달 케어 서비스로 만족!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를 'K-water'로 불러주세요